

# 秦漢簡『日書』의 方位觀 研究\*

－ 周家臺·睡虎地 秦簡『日書』, 孔家坡 漢簡『日書』를 중심으로

金惠貞\*\*

## 目 录

1. 序論
2. 『日書』形成의 背景
3. 周家臺, 睡虎地 秦簡『日書』의 方位觀
4. 孔家坡 漢簡『日書』의 方位觀
5. 方位 測程器具, 漢代 式盤의 方位觀
6. 周家臺·睡虎地 秦簡『日書』, 孔家坡 漢簡『日書』의 方位觀과 五行의 關係
7. 結論

## 1. 序論

중국에서 방위에 함축된 의미는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며 오랜 역사 동안 사회 전반 분야에서 골고루 활용되어 왔다. 殷代에는 동서남북의 방위관에 따라 전 국토를 東土·西土·南土·北土의 四土로 나누어 다스렸고,<sup>1)</sup> 중앙에 위치한 邑이자 은나라의 도성이던 中商이라는 명칭이 점차 殷을 대신하게 된 것은,<sup>2)</sup> 방위를 중시하고 행정에도 활용했던 좋은 사례이다. 또 周代에 궁성

\* 본 논문은 시간강사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아 작성됨.

\*\* 대전대학교 중국언어문화학과 강의전담교원.

1) 陳煒湛 著, 李圭甲 外 譯, 『甲骨文導論』, 서울: 學古房, 2002, 150쪽: “己巳王卜, 貞: (今)歲商受(年)? 王占曰: 吉. 東土受年? 南土受年? 吉, 西土受年? 吉. 北土受年? 吉.”

2) 張光直, 윤내현 譯, 『商文明』, 서울: 민음사, 1988, 210쪽.

내부의 陵寢이 “左昭右穆, 前廟後寢”<sup>3)</sup>의 방위관에 따라 조성되었고, 교제는 궁성의 남쪽 교외에서 지냈으며, 四海와 四嶽에 정기적인 제사를 올렸고, 東京·西京·南京·北京을 두어 치국의 기반으로 삼았다.

그리고 전국시대 『山海經』의 저술 체계인 동서남북과 중앙의 방위관, 전통적인 도성과 왕궁·전각·시장·종묘·사직 등의 엄격한 방위관,<sup>4)</sup> 封禪儀式에 보이는 太一과 中央土의 방위관,<sup>5)</sup> 중국 전통 가옥인 사합원의 四方觀, 수나라 대홍성의 구도인 南北의 子午線<sup>6)</sup> 등은 방위가 차지하는 큰 의미와 기능을 대별한다. 또 방위 중시는 문화유산으로서 중국의 자금성은 물론 한국의 경복궁과 종묘사직의 위치 및 명칭에까지도 영향을 미쳤다.<sup>7)</sup>

중국에서 방위는 물리적인 지면 구획을 넘어, 시간과 공간 두 부분을 모두 포함한 광범위한 구도였다. 예를 들면 공간 표시에서 ‘子’는 북방을 의미하지만, 시간 표시에서 ‘子’는 연·월·일·시를 고루 의미한다. 또 동서남북은 방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봄·가을·여름·겨울을 의미하기도 한다.

중국에서 방위는 역사 문화적으로 중요한 기틀임에 따라 점차 금기에 대한 인식이 과생되었고, 특히 시일금기에 대한 인식은 일종의 생활지침서로서 秦漢代 簡帛文獻 가운데 『日書』<sup>8)</sup>로 구체화되었다. 『일서』는 전국시대 후기 日

3) 左昭右穆은 고대의 宗法制度로서, 『周禮·春官·小宗伯』과 『周禮·春官·塚人』에 나오는데 능묘, 종묘, 종묘의 神主를 차례대로 배열하는 것이다. 시조를 가운데에 두고 그 다음 자손을 왼쪽에 두어 昭라 하고, 그 다음 자손을 오른쪽에 두어 穆이라 한다. 前廟後寢은 고대 종묘의 전각을 세우는 제도로서, 正殿인 廟는 앞에 세우고 後殿인 寢은 뒤에 세우는 것을 말한다.

4) [清] 阮元 校刻, 『周禮·考工記』(十三經注疏), 北京: 中華書局, 1980: “匠人營國, 方九里, 旁三門. 國中九經九緯, 經九軌, 左祖右社, 面朝後市, 市朝一夫.”

5) 鐘宗憲, 『先秦兩漢文化的側面研究』, 臺北: 知書房, 2005, 114-115쪽.

6) 세오 다쓰히코, 최재영 역, 『장안은 어떻게 세계의 수도가 되었나』, 서울: (주)황금가지, 1996, 131-133쪽.

7) 자금성과 경복궁 모두 남북의 방위를 기준으로 축조된 전형적인 사례인데, 남향을 중시하여 정남향을 향해 그 기본적인 틀이 구축되었다. 이에 따라 성의 대문은 정남향을 의미하는 午를 명칭에 사용하여 오문이라 이름 했다. 현재 광화문의 이전 명칭도 오문이었다. 또 자금성과 경복궁의 좌우로 종묘와 사직단을 둔 것은 『周禮·考工記』의 “左祖右社, 面朝後市”의 원칙을 따른 것이다.

者들이 時日의 길흉을 점칠 때 쓰던 책으로서, 고대 중국에서 택일과 역법의 관계를 구체화시켜 일상생활에 쉽게 응용할 수 있도록 한 최초의 문헌이다. 竹簡과 帛書의 형태의 간백문헌은 經과 子의 문헌, 의학·천문·역법·수학서, 다양한 점서가 포함되어 있다. 이들 문헌은 철학·역사학·종교·어학·문학 등 다양한 고대 중국문화의 복원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 가운데 『日書』에는 吉·凶, 吉祥·不祥, 禍·福 등의 二元論을 기축으로 음양설·오행설·천문·역법·신화·전설 등의 내용이 실려 있다.<sup>9)</sup>

『日書』는 湖北省 雲夢縣 睡虎地の 秦簡 『日書』, 湖北省 江陵縣 九店的 東周時期 楚簡 『日書』, 湖北省 荊州市 周家臺의 秦, 漢簡 『日書』, 湖北省 隨州 孔家坡의 漢簡 『日書』, 河北省 定縣의 漢簡 『日書』, 安徽省 阜陽縣 雙古堆의 漢簡 『日書』, 湖北省 江陵縣 張家山の 漢簡 『日書』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日書』에 대한 연구로는 설화와 관련한 「從秦簡 『日書』看牛郎織女故事之形成與流變」,<sup>10)</sup> 오행관념의 완성과 발전시기를 다룬 「秦簡 『日書』五行觀念研究」,<sup>11)</sup> 『日書』와 수리관계를 다룬 「從雲夢秦簡 『日書』看秦國的農業水利等有關狀況」,<sup>12)</sup> 『日書』의 글자를 考釋하고 내용을 정리한 『睡虎地秦簡 『日書』甲種疏証』,<sup>13)</sup> 『日書』를 통한 秦代의 出行과 民間信仰을 다룬 「從秦簡 『日書』分

8) 1927년부터 현재까지 중국에서는 왕족, 귀족, 서민 무덤의 부장품인 竹簡·木簡·帛書 등이 대량으로 발굴되었다. 이 가운데 『일서』의 數術은 儒術과 함께 당시 관리에게 필수 지식으로서 『일서』는 그 지역의 풍속과 습관, 민간의 신앙 이해에도 요긴하다. 『일서』는 점서였기 때문에 분서사건에 휘말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한대까지 전해지게 되었다: 김성기 외, 「出土資料 『日書』의 연구현황과 그 사상사적 의의」, 동양철학연구회, 2005, 제 42집, 169-170쪽, 문정희, 「秦漢 祭禮와 국가지배」,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157-159쪽.

9) 앞의 논문, 「出土資料 『日書』의 연구현황과 그 사상사적 의의」, 165-176. 중국에서 출토된 簡帛文獻의 종류, 歷史, 연구 동향 등은 『簡帛文獻學通論』(張顯成 著, 北京: 中華書局, 2004)에 자세하다.

10) 王朝陽, 「從秦簡 『日書』看牛郎織女故事之形成與流變」, 貴州: 貴州文史叢刊, 2011年 2月.

11) 劉道超, 「秦簡 『日書』五行觀念研究」, 周易研究, 桂林: 廣西師範大學曆史文化與旅遊學院, 2007年 4期.

12) 賀潤坤, 「從雲夢秦簡 『日書』看秦國的農業水利等有關狀況」, 江漢考古, 1992年 4月.

13) 王子今, 『睡虎地秦簡 『日書』甲種疏証』, 武漢: 湖北教育出版社, 2002.

析秦人重出遊的原因」,<sup>14)</sup> 「睡虎地秦簡 『日書』所見的秦時民間信仰活動探微」,<sup>15)</sup> 『日書』의 주거관을 연구한 「從秦簡 『日書』看戰國時期的相宅術」,<sup>16)</sup> 『日書』와 혼인제도 등을 연구한 「從秦簡 『日書』看秦代婚姻和家庭人際關係」,<sup>17)</sup> 등이 있다. 또 風水地理 理論 연구에 『日書』를 참고한 「中國 風水地理學의 天文觀 研究」,<sup>18)</sup>와 陽宅 風水地理 方位觀 연구에 『日書』를 참고한 「양택 풍수지리의 방위관: 『宅經』을 중심으로」,<sup>19)</sup> 등이 있는데 『日書』의 방위관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방위는 중국에서 매우 중요한 관념이자 생활 속의 근간이었고, 방위와 관련된 구체적인 최초의 서적이 간백문헌이며, 최근에 周家臺와 睡虎地 秦簡 『日書』와 孔家坡 漢簡 『日書』가 정리, 출판됨에 따라 위 문헌을 중심으로 『日書』의 방위관을 살피고자 한다. 『日書』이외에 방위 측정도구인 식반, 방위 관념의 기본 구도인 오행에 대한 고찰도 병행함으로써 秦漢簡 『日書』자체는 물론 당시의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이해가 보태지길 기대한다.

## 2. 『日書』 형성의 배경

『일서』는 당시 사람들이 늘 지참하던 工具書 또는 選擇書인데, 기본적으로 술수 서적이다. 術數는 數術이라고도 하며 고대 중국에서는 하나의 전문적인 학문이었으며, 시대마다 그 지위와 내용은 약간씩 달랐다.<sup>20)</sup> 『일서』의 기본 내

14) 閔喜琴, 「從秦簡 『日書』分析秦人重出遊的原因」, 隴東學院學報, 2009年 1月.

15) 沈剛, 「睡虎地秦簡 『日書』所見的秦時民間信仰活動探微」, 西安財經學院學報, 2009年 1月.

16) 杜林淵, 「從秦簡 『日書』看戰國時期的相宅術」, 文博, 2007年 5月.

17) 趙浴沛, 「從秦簡 『日書』看秦代婚姻和家庭人際關係」, 河南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05年 2月.

18) 金惠貞, 「中國 風水地理學의 天文觀 研究」, 공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19) 金惠貞, 「양택 풍수지리의 방위관: 『宅經』을 중심으로」, 건축역사연구, 제18권 제2호, 통권63호(2009년 4월).

20) 劉東賢, 『簡帛數術文獻探論』, 武漢: 湖北教育出版社, 2002, 3쪽.

용인 時日禁忌는 曆法에서 시작되었는데,<sup>21)</sup> 고대의 曆法은 천문성수의 운항 궤도, 태양의 움직임, 빛, 물체의 그림자 등에 대한 치밀하고 오랜 관측을 통해<sup>22)</sup> 그 규칙성을 구체화한 것이다.

『尙書』에는 천문관측기구를 통한 일·월·화성·수성·목성·금성·토성의 관측 기록이 있는데,<sup>23)</sup> 고대 중국인은 보다 정교한 역법을 위해 복두칠성과 28수가 위치한 방위에 특히 주목하였다.<sup>24)</sup> 복두칠성은 외견상 1년에 한 차례 자전하는 동안 28수 가운데 특정별을 가리키게 되는데,<sup>25)</sup> 殷代에는 두 星宿의 동정을 통해 曆法·저녁시간·방위·계절 등을 구분하였다.<sup>26)</sup>

『일서』의 술수내용이 기본적으로 時日에 대한 禁忌로서, 시일은 역법을 통해 확정되었고, 역법의 준거가 천문이라는 점에서 『일서』형성의 근본 배경은

- 21) 앞의 논문, 「出土資料 『日書』의 연구현황과 그 사상사적 의의」, 169쪽.
- 22) 고대 중국의 천문관측은 매우 치밀하여, 『옥해』에는 기원전 165년경의 흑점관측이 기록되어 있다: [南宋] 王應麟 纂, 『玉海』(195卷),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7, 3567쪽: “冊府元龜, 文十五年春, 黃龍見成紀, 又日中有王字.” 중국 천문학자 석택중은 전국 시기 천문학자인 甘德의 목성위성발견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는데, 이것으로 인류가 행성의 위성을 인식하게 된 시기는 2천년 앞당겨졌다: 岳南 著, 심규호·유소영 共譯, 『夏商周斷代工程 I』, 서울: 일빛, 2006, 368-369쪽.
- 23) [清] 阮元 校刻, 『尙書·虞書·堯典』(十三經注疏), 北京: 中華書局, 1980, 126-127쪽: “正月上帝, 受終于文祖, 在璿璣玉衡, 以齊七政.”
- 24) 28수는 고대 천문학의 기본으로서, 28수가 經星이었다면 오성은 緯星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다. 오성은 토성의 운행규칙을 바탕으로 경성의 위치와 상응하게 되는 각각의 기준별이 된다: 앞의 책, 『先秦兩漢文化的側面研究』, 115쪽.
- 25) 예를 들면 복두칠성이 하늘의 중앙에서 房·虛·卯·星宿를 가리키게 되면 지상에서는 봄·여름·가을·겨울의 한창 때가 된다.
- 26) 실제로 B.C. 1200년경 立夏에서 小滿 사이에 28宿의 角, 亢星이 해질 녘 중천에 떠오르면, 斗柄은 남쪽을 가리키며, 蒼龍七宿는 해질 녘 동쪽하늘에 모두 나타나게 된다. 또 大雪前後에 斗柄은 남쪽을 가리키지만, 角·亢星은 아침에 中天에 떠있고, 蒼龍七宿는 새벽에 동쪽하늘에 모두 나타난다. 商人들은 北斗七星과 蒼龍七宿의 운행을 파악하여 殷曆을 정하는 표지로 삼았다: 簿樹人 編, 『中國天文學史』, 台北: 文津出版社, 1996, 48쪽.
- 28수는 동서남북의 네 방위에 7수씩 배당된다. 위의 蒼龍七宿는 현재 靑龍七宿라고 하는데 角·亢·氐·房·心·尾·箕의 7수이다. 북방·서방·남방7수는 각각 斗·牽·婺·虛·危·營·東辟 / 奎·婁·危·卯·畢·此觶 / 東井·輿鬼·柳·七星·張·翼·軫이다.

천문성수의 방위에 대한 경험 지식의 축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천문성수의 방위는 농사 시기 구분, 지상 방위의 구획, 역법의 정립, 禮制의 근거, 건축물 조성 등 일상생활의 중요한 지침으로 다양하게 활용되었다. 천문성수의 방위를 보고 농사를 지었고,<sup>27)</sup> 1년 생활의 지침으로 활용했으며,<sup>28)</sup> 九州와 十二州를 구획하고, 班朔·告朔·視朔(聽朔)의 예제를 두었으며,<sup>29)</sup> 大喪과 주요 연회에서 사용할 얼음을 채취했고,<sup>30)</sup> 건축물 조성의 기준 등으로 활용하였다.<sup>31)</sup> 이와 같이 천문성수의 방위가 지상에서의 시간과 공간, 생활의 기준이

- 27) “옛날 태사는 천시를 따라 땅을 관찰했는데, 양기가 꿈틀대고 기운이 가득차고, 토기가 모여 일어나고, 방수가 정월 새벽 남쪽에서 비추고, 일월이 (북쪽 영실수가 있는 하늘에서) 만나는 입춘이 되면, 땅에 맥이 일어납니다(古者, 太史順時觀土, 陽輝憤盈, 土氣震發, 農祥晨正, 日月底于天廟, 土乃脈發.)” : [周] 左丘明, [吳] 韋昭注, 『國語·周語(上)』, 濟南: 齊魯書社, 1998, 8쪽.
- 28) “칠월에 화성이 서쪽으로 기울면, 구월에 추위 날 옷을 내린다. 동짓달에 싸늘한 바람 일고 선달에 매서운 강추위 몰아쳐 추위 날 옷들이 없으면 이 해를 어이 넘길까? 정월의 날에는 쟁기 손질하고 이월의 날에는 밭을 간다.……칠월에 화성이 서쪽으로 기울면 팔월에 갈대가 쉰다.……사월에 아기풀 이삭이 나면 오월에 매미가 울고 팔월에 곡식을 걷어 들이면 시월에 초목의 낙엽이 진다.……선달에 여럿이 사냥을 하고 무술을 익혀, 작은 짐승은 우리가 갖고 큰 짐승은 임금께 바친다.……구월에 채마밭에 타작마당 닦고 시월에 걷어 들이는 곡식은 차기장·메기장과 늦 곡식·이른 곡식 그리고 벼·삼씨·콩·보리들이다(七月流火, 九月授衣, 一之日疇發, 二之日栗烈. 無衣無褐, 何以卒歲. 三之日于耜, 四之日舉趾.……七月流火, 八月萑葦.……四月秀麥, 五月鳴蜩. 八月其穫, 十月隕蔞.……二之日其同, 載纘武功. 言私其縱, 獻豸于公.……九月築場圃, 十月納禾稼. 黍稷重穆, 禾麻菽麥): [清] 阮元 校刻, 『毛詩正義·毛詩正義·豳風·七月』, 北京: 中華書局, 1980, 389-391쪽.
- 29) 班朔은 매년 가을과 겨울 사이에 天子가 다음해의 曆法을 諸侯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고, 告朔은 諸侯들이 매월 초하루에 양을 犧牲삼아 宗廟에 초하루를 告하는 것이고, 視朔 또는 聽朔은 告朔의 예를 거행한 후 太廟에서 1월에 할 政事를 듣는 것이다. 중국에서 頒曆은 王廷의 중요한 행정조치였고, 正朔을 받는 것은 일종의 신하된 표시였다 : 許進雄, 『古事雜談』,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2013, 423쪽.
- 30) [清] 阮元 校刻, 『春秋左傳正義·桓公17年』(十三經注疏), 北京: 中華書局, 1980, 注, 1248쪽 : “喪謂大喪, 共夷盤水, 祭謂祭祀共冰鑑.……則夏正三月, 天蠍座α星于黃昏時出現, 於是食肉者皆可以得水. 然此時雖分得水, 未必用之, 至夏季始用.”
- 31) 毛公 傳, 孔穎達 等 正義, 『毛詩正義·鄘·定之方中』,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0, 232쪽 : “定之方中, 作于楚宮. 揆之以日, 作于楚室.”

뒤에 따라 고대 중국인에게 시간과 공간은 이분법적 대상이 아니라, 함께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생활의 기준으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천문성수의 방위를 기준으로 시일금기를 제시하고 있는 『일서』의 이면에는 시간과 공간의 구분이 배제되어 있다.

음양오행관과 팔괘에 대한 인식의 정착 또한 『일서』 형성의 주요 원인이었다. 음양오행의 상생상극론과 人事 豫斷의 활용 사례가 『春秋左氏傳』에 기록되어 있고,<sup>32)</sup> 『주역』의 乾, 坤, 艮, 巽, 坎, 離, 震, 兌의 八卦가 동서남북과 四維方을 바탕으로 天·地·日·月·雷·風·山·澤 등 자연의 기본적인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면에서<sup>33)</sup> 그 점이 확인된다.

전국시대 신선사상의 흥기에 따른 방술의 유행도 『일서』 형성의 중요 배경이다. 전국시대 方士들은 東海와 서쪽 崑崙山을 성지로 인식하였고, 일반 사람들 또한 예외가 아니어서 長沙 陳家大山 楚墓에서 발견된 帛書에는 여자 墓主가 龍鳳의 인도 하에 서방으로 가는 정경이 龍鳳婦女圖에 그려져 있다. 또 長沙 子彈庫 楚墓에서 발견된 帛書에는 남자 墓主가 蛟龍을 타고 서방으로 가는 정경이 男子御龍圖에 묘사되어 있는데, 이것은 屈原이 離騷에서 묘사한 神魂이 西方으로 간다는 情景와 상통한다.<sup>34)</sup>

『일서』의 형성은 진한대의 정치사회적 현상과도 무관하지 않다. 秦代는 오랜 전란과 폭정으로 병역 기피, 재산 보호, 남아선호, 송사의 결과 등이 민감한 사안이었고, 이에 따라 미래를 예견하고 대처하려는 움직임은 필연적이었다. 이 때 시일의 금기와 미래예측 수단으로서 『일서』는 당시 사람들이 생활 속의 복잡다단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용한 선택공구서로 기능하였다.

이와 같이 천문 성수의 방위에 대한 오랜 관측과 연구 결과를 역법의 정비

32) “盈(晉 始祖의 姓)은 강 이름이고, 子姓(宋나라)은 水의 방위입니다. 물 이름과 子방위(水방위)가 맞서면 서로 이기지 못합니다. 炎帝는 불의 사용을 가르쳤고, 姜姓은 그 후 예인데다 水는 火를 이기니, 姜姓의 나라를 치면 좋습니다(盈, 水名也; 子, 水位也. 名位敵, 不可干也. 炎帝爲火師, 姜姓其後也. 水勝火, 伐姜則可).” : 앞의 책, 『春秋左傳正義·哀公9年』, 2165쪽.

33) 南懷瑾 著, 신원봉 譯, 『易經雜說』, 서울 : 문예출판사, 1998, 40-42쪽.

34) 楊寬, 『戰國史』, 臺北 : 臺灣商務印書館, 1997, 536-537쪽.

와 함께 농사·예제·제사·행정·입지·전쟁·미래예측·토지구획·건축·일상 등 생활 전반에 활용하면서 천문성수의 방위는 지상의 시공을 결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나아가 방위는 시공을 초월한 범위로 인식되었고, 방술의 흥기, 음양오행론의 활용, 위기로 가득 찬 생존환경을 극복하려는 염원 등은 『일서』가 저술될 수 있었던 주요 배경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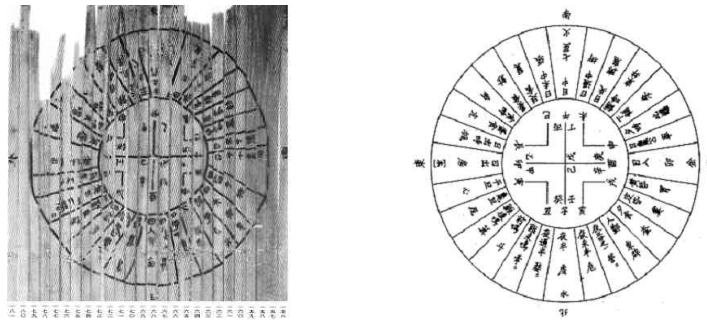
### 3. 周家臺, 睡虎地 秦簡 『日書』의 方位觀

秦代の 方位觀은 周家臺 秦簡 『日書』에 도식화되어 있다. 周家臺 方位도는 발견 당시 관 속 모퉁이에 무더기로 놓여있었지만, 학자들이 竹簡 밑의 일련번호를 통해 원래의 순서대로 복원하였다. 주가대 方位도는 중앙·사방·8방·12방위·24방위·28칸의 시간 구분이 기본 구도이다.

四方은 주가대 方位도 원 바깥의 동·서·남·북으로, 중앙은 가운데 십자 모양의 정 중앙에 戊, 己로 표기되어 있다. 8방은 甲·乙·丙·丁·庚·辛·壬·癸로 구분되어 있고, 12방위는 지지의 亥·子·丑·寅·卯·辰·巳·午·未·申·酉·戌의 순차적 배열로 되어 있다. 이 때 지지의 12방위, 천간의 8방위, 중앙의 戊·己를 열십자의 각 칸 마다 배열하면 4방위가 되어, 도합 24방위가 완성된다. 24방위는 지지와 천간의 엇갈린 배속을 따름으로써 음과 양의 질서정연한 교차와 순환을 나타내고 있다. 또 바깥 원의 28개 부분은 28宿의 명칭을 사용하여 하루를 28시간으로 구분한 것이다.

주가대 方位도에는 하루 28시간과 24방위공간에 대한 인식이 동시에 구현되어 있다. 하루 28시간의 네 중심은 태양이 떠오르는 日出, 태양이 하늘 정 중앙에 떠있는 日中, 태양이 저문 日入, 한밤중(夜半)으로 되어 있어, 공간에서의 태양의 움직임이 지상의 시간 구획의 관건이었음을 보이고 있다. 또 동서남북은 다시 東→卯, 西→酉, 南→午, 北→子로 대응됨과 동시에 日出·日中·日入·夜半과도 대응하고 있다.

주가대 방위도에는 천문성수와 지상의 방위를 바탕으로 인사의 내용이 밀접하게 연관 지어져 있다. 방위도의 角·亢·氐·房·心·尾·箕·斗·牽·婺·虛·危·營·東辟·奎·婁·危·卯, 畢·此觸·參·東井·輿鬼·柳·七星·張·翼·軫의 28宿 표기는 하루의 시간임과 동시에 1년의 시기 구분이기도 하다. 그것은 “八月, 角·亢, 九月, 氐·房, 十月, 心·尾·箕, 十一月, 斗·牽, 十二月, 婺·虛·危, 正月, 營·東辟, 二月, 奎·婁, 三月, 危·卯, 四月, 畢·此觸·參, 五月, 東井·輿鬼, 六月, 柳·七星, 七月, 張·翼·軫.”<sup>35)</sup>이라는 기록에서 확인된다. 또 가장 안쪽의 천간과 지지는 기본적으로 지상의 방위 표기이기 때문에, 방위도는 천문성수의 방위, 지리 구획의 방위, 시간을 중심으로 편성되는 인사의 종합적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周家臺 秦代 竹簡<sup>36)</sup>

주가대 『일서』에서 천문성수의 방위는 인사의 관건으로 묘사되었다. 특히 북두칠성이 하늘의 중앙에서 운행할 때 바깥 둘레의 어느 28수에 대응하느냐를 중시했다. 북두칠성과 28수의 대응을 기준으로 객이 찾아와서 좋은 일 혹은 굵은일을 말할 것인지, 일의 진행을 묻거나 송사, 계약, 도둑이나 도망자의 체포 여부, 병환이 나올 것인지, 전쟁에서 승리할 것인지, 매매, 물건취입 등

35) 위의 책, 『關沮秦漢墓簡牘』, 104-105쪽.

36) 湖北省荊州市周梁王橋遺址博物館編, 『關沮秦漢墓簡牘』, 北京: 中華書局, 2001, 44쪽.

등 인사의 성패가 달라지는 것이라 하였다.<sup>37)</sup>

지상의 방위 구획의 기준과 인사의 향방을 결정짓는 관건에서 중요 핵심이 북두칠성이고 그것은 하늘의 중앙에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중앙 중시 방위관이 드러난다. 천문과 지상에서의 중앙 중시는 진대 이전부터의 관념인데, 은대의 中商이나 ‘中’<sup>38)</sup>은 그것의 전형이며, 주나라는 중앙정부에 직방씨라는 관리를 두고 사방의 토지를 관리했다.<sup>39)</sup> 뿐만 아니라 주나라 소공 때는 은나라 때의 동토·서토·남토·북토를 더욱 세분해서 다스렸고,<sup>40)</sup> 이후 중앙은 국도건립과 같은 중대사에도 큰 기틀로 자리해왔다.<sup>41)</sup>

37) 위의 책, 『關沮秦漢墓簡牘』, 110-117쪽 : “角, 斗乘角, 門有客, 所言者急事也. 獄訟, 不吉……亢, 斗乘亢, 門有客, 所言者行事也.……占獄訟, 不吉,……氐, 斗乘氐, 門有客, 所言者憂病事也. 占獄訟, 不解,……房斗乘房, 門有客, 所言者家室事也,……占獄訟, 解,……心, 斗乘心, 門有客, 所言者口樹賞賜事也.……占市旅, 吉,……尾, 斗乘尾, 門有客, 所言者吉事也. 占獄訟, 勝,……箕, 斗乘箕, 門有客, 所言者急, 善事成, 不善不成. 占獄訟, 急, 後解,……斗, 斗乘斗, 門有客, 所言者末事, 急事也. 占獄訟, 不勝,……牽, 斗乘牽,……占獄訟, 不勝,……婺, 斗乘婺,……占獄訟, 不吉,……虛, 斗乘虛,……占獄訟, 解,……危, 斗乘危,……占獄訟, 疑,……營, 斗乘營,……占獄訟, 勝,……東辟, 斗乘東辟,……占獄訟, 勝,……奎, 斗乘奎,……占獄訟, 不吉,……婁, 斗乘婁,……凶事成, 吉事不成,……危, 斗乘危,……占得利, 貨, 財, 必後失之,……卯, 斗乘卯,……占病者, 小可,……畢, 斗乘畢,……以期約結者, 成,……此鱷, 斗乘此鱷,……獄訟, 解,……參, 斗乘參,……獄訟, 解,……東井, 斗乘東井,……占獄訟, 不吉,……輿鬼, 斗乘輿鬼,……占約結, 不成,……柳, 斗乘柳,……占約結, 不成,……七星, 斗乘七星,……占約結, 成,……張, 斗乘張,……占獄訟, 勝, 占約結, 成,……翼, 斗乘翼,……占約結, 成,……軫, 斗乘軫,……占獄訟, 解, 占約結, 成.”

38) 태양과 그림자를 통해 시간과 방위를 정하던 오랜 도구이다. 은대에 中은 관측대나 관측 막대를 의미했고, 그것을 특정일에 세울지 말지를 상제에게 묻는 갑골문이 있다 : 梁東淑, 『甲骨文에 나타난 商代의 天文學』, 韓國中文學會, 中國文學研究, 제22집, 서울, 2001, 243쪽 참조. 中은 주대에는 표, 규표, 토규라고 했고, 태양의 그림자, 토지의 원근 등을 재는데 사용되었다. 표의 구조는 간단하지만 방위와 시간 확정의 도구로서, 1년 중 정오에 표에 의해 나타나는 그림자의 장단을 통해 동지와 하지를 정하였다 : 陳久金·楊怡 著, 『中國 古代의 天文與曆法』, 台北 : 臺灣商務印書館, 2005, 19-20쪽.

39) [漢] 班固 撰, 『漢書·地理志』, 北京 : 中華書局, 1964, 1539쪽 : “故周官有職方氏. 掌天下之地, 辯九州之國.” 師古曰 : “夏官之屬也. 職, 主也. 主四方之土地.”

40) [清] 阮元 校刻, 『春秋左傳正義·昭公9年』(十三經注疏), 北京 : 中華書局, 1980, 2056쪽 : “我自夏以后稷, 魏, 駘, 芮, 岐, 畢, 吾西土也. 及武王克商, 蒲姑, 商奄, 吾東土也. 巴, 濮, 楚, 鄧, 吾南土也. 肅慎, 燕, 亳, 吾北土也.”

睡虎地 秦簡 『日書』에서는 북두칠성과 28수의 방위를 바탕으로 1년 12개월을 구분한 외에 매 달 12地支의 특정일을 정해, 인사 길흉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다. 그것이 除인데 除는 ‘어느 특정한 날에 어떤 일은 길하고 어떤 일은 흉하다’라는 내용으로서, 일종의 생활 시일금기의 규칙이다. 除는 요즘의 ‘운’ 또는 ‘운수’인데, 고대인들의 장기적인 생활 속 경험의 총결로서 결코 견강부회라 볼 수 없다.<sup>42)</sup>

12가지의 除 가운데 ‘溲는 結日로서 일의 성취가 어렵고, 제사에도 조금 불리한 날이고, 媚는 陽日로서 모든 일에 좋고, 建은 交日로서 제사와 출행 등 실사에 유리하고, 陷은 害日로서 역병 등을 없애는 데 좋고, 彼는 陰日로서 제사와 사람을 들이면 좋고, 平은 達日로서 출정, 제사에 좋은데 아들이 태어나도 길하고, 宁는 外陽日로서 사냥에 좋고 도망에 불리하며, 空은 外害日로서 일을 벌이기에 좋지 않은 날이며, 坐는 外陰日로서 제사와 재화에 좋지만 산간벽지에 나가는 일은 좋지 않으며, 蓋는 絶日로서 아이를 낳거나 제반 일에 좋지 않으며, 成은 夫光日로서 높은 곳에 올라 음식을 먹거나 수렵에 좋고, 아들과 딸 누구를 낳아도 길하며, 甬은 秀日로서 大事나 큰 제사, 자녀를 낳는데 모두 좋지만 동생에게는 좋지 않은 날’<sup>43)</sup>이라는 내용에서 보이듯이 시일금기 기준이다. 除에 따른 地支의 날은 아래와 같다.

除<sup>44)</sup>

除	溲媚建陷彼平宁空坐蓋成甬
十一月 斗	子丑寅卯辰巳午未申酉戌亥
十二月 須	丑寅卯辰巳午未申酉戌亥子
正月 營	寅卯辰巳午未申酉戌亥子丑
二月 奎	卯辰巳午未申酉戌亥子丑寅
三月 胃	辰巳午未申酉戌亥子丑寅卯

41) 『呂氏春秋·審分覽·慎勢』, 台北: 中華書局, 1988, 13쪽: “古之王者, 擇天下之中而立國, 擇國之中而立宮, 擇宮之中而立廟.”

42) 앞의 책, 『睡虎地秦簡 『日書』甲種疏証』, 7쪽.

43) 위의 책, 『睡虎地秦簡 『日書』甲種疏証』, 5-48쪽.

44) 위의 책, 『睡虎地秦簡 『日書』甲種疏証』, 5쪽.

四月 畢	巳午未申酉戌亥子丑寅卯辰
五月 東	午未申酉戌亥子丑寅卯辰巳
六月 柳	未申酉戌亥子丑寅卯辰巳午
七月 張	申酉戌亥子丑寅卯辰巳午未
八月 角	酉戌亥子丑寅卯辰巳午未申
九月 氏	戌亥子丑寅卯辰巳午未申酉
十月 心	亥子丑寅卯辰巳午未申酉戌

除의 溲·媚·建·陷·彼·平·宁·空·坐·蓋·成·甬은 다른 말로 結日·陽日·交日·害日·陰日·達日·外陽日·外害日·外陰日·毆(擊)日·夫光日·秀日이라고도 했다. 이에 대한 시일금기 보완사항은 “결일은 일을 하는데 제사는 올릴 수 없다. 안 좋다.…….양일은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교일은 재물에 이롭다.…….해일은 역병을 없애기에 이롭다.……음일은 결혼에 이롭다.……달일은 출정에 이롭다.……(외)양일은 야외 일에 이롭고, 사냥도 좋다. 외해일은 바깥출입을 하면 안 된다.……외음일은 제사에 이롭다.……격(격)일은 자식을 낳으면 가난하거나 고아가 된다.……쾌광일은 높이 오르거나, 음식, 사망의 야외사냥에 이롭다.……수일은 큰일을 일으키기에 이롭다. 큰 제사에 길하다”<sup>45)</sup>라고 설명되어 있다.

睡虎地 秦簡 『日書』에서는 가옥의 위치와 방위도 인사 길흉의 관건으로 보았다. 『宅居』는 睡虎地 秦簡 『日書』甲種에 포함되는 문헌인데, 집의 방위 외에 담장·축사·곳간·대문과 같은 부속 시설의 방위까지도 길흉의 향방을 결정짓는다고 보고 있다. 아래는 그 주요 내용이다.

“집이 마을에서 가장 높으면 귀하지만 가난하다. 집이 마을에서 가장 낮으면, 부자지만 아프다. 집의 사방이 높고 중앙이 낮으면 부하다. 집의

45) 睡虎地秦墓竹簡整理小組編, 『睡虎地秦墓竹簡』, 北京, 文物出版社, 1990, 181쪽 : “結日, 作事, 不成以祭, 閏(咨).……陽日, 百事順成.……交日, 利以實事.……害日, 利以除凶厲.……陰日, 利以家室.……達日, 利以行師.……(外)陽日, 利以建野外, 可以田獵.……外害日, 不可以行作.……外陰日, 利以祭祀.……毆(擊)日, 以生子, 寔孤.……夫光日, 利以登高, 飲食, 獵四方野外.……秀日, 利以起大事. 大祭, 吉.”

사방이 낮고 중앙이 높으면 가난하다. 집의 북방이 높고 남방이 낮으면 영화가 없다. 집의 남방이 높고 북방이 낮으면 매매에 유리하다. 집의 동방이 높고 서방이 낮으면 여자가 중심이 된다. 집에 요(要)가 있으면 가난하지 않지만 형을 받는다. 집 가운데 골이 있으면 불길하다. 집의 오른쪽이 길고 왼쪽이 짧으면 길하다. 오른쪽이 길면 여자가 중심이 된다. 집이 서남쪽에서 서쪽으로 치우쳤으면 부하다. 집이 서북쪽에서 북쪽으로 치우쳤으면 절손된다. 집이 동북쪽에서 북쪽으로 치우쳤으면 편안하다. 집이 동북으로 치우쳤으면 축출된다. 집이 동남쪽으로 치우쳤으면 부하고 여자가 중심이 된다. 집 주위로 길이 둘러있으면 불길하다. 사당의 나무가 집에까지 닿으면 불길하다. 동쪽이 높고 서쪽으로 이어진 담은 군자가 뜻을 이루지 못한다. 서남쪽으로 지당이 있으면 부하다. 정북쪽으로 지당이 있으면 모친에게 불리하다. 물이 서쪽으로 흐르면 가난하고 여자가 구설수에 오른다. 물이 북쪽으로 흐르면 재물이 모이지 않는다. 물이 남쪽으로 흐르면 집안에 유리하다. 축사가 서남쪽에 있으면 귀하고 길하다. 축사가 정북쪽에 있으면 부하다. 축사가 정동방에 있으면 망한다. 축사가 동남쪽에 있으면 총애는 있지만 끝까지 가지 못한다. 축사가 서북쪽에 있으면 자손과 화목하다. 곳간이 서북 모퉁이에 있으면 불리하다. 곳간이 서남 모퉁이에 있으면 차지도 않고 이롭지도 않다. 곳간이 서남쪽에 있으면 길하다. 곳간이 동북 모퉁이에 있으면 길하다. 우물이 문과 창문 사이에 있으면 부하다. 우물이 서남 모퉁이에 있으면 가장이 아프지 않지만 가난하다. 우물이 서북 모퉁이에 있으면 반드시 절손된다. ……집은 작은데 대문이 크면 가난하다.”<sup>46)</sup>

방위와 시일금기는 『일서』이전에 정착되었는데, 『墨子·貴義』에 “묵자가

46) 앞의 책, 『睡虎地秦簡『日書』甲種疏証』, 328-330쪽 : “凡宇最邦之高, 貴貧. 宇最邦之下, 富而疼. 宇四旁高, 中央下, 富. 宇四旁下, 中央高, 貧. 宇北方高, 南方下, 毋寵. 宇南方高, 北方下, 利賣市. 宇東方高, 西方下, 女子爲正. 宇有要, 不窮必刑. 宇中有谷, 不吉. 宇右長左短, 吉. 宇左長, 女子爲正. 宇多于西南之西, 富. 宇多于西北之北, 絶后. 宇多于東北之北, 安. 宇多于東北, 出逐. 宇多于東南, 富, 女子爲正. 道周環宇, 不吉. 祠木臨宇, 不吉. 垣東方高西方之垣, 君子不得志. 爲池西南, 富. 爲池正北, 不利其母. 水瀆西出, 貧, 有女子言. 水瀆北出, 毋臧貨. 水瀆南出, 利家. 圈居于西南, 貴吉. 圈居于正北, 富. 圈居于正東方, 敗. 圈居于東南, 有寵, 不終泄. 圈居于西北, 宜子與. 困居宇西北 ㊦(陋), 不利. 困居宇東南 ㊦(陋), 不盈, 不利室. 困居于西南 ㊦, 吉. 困居于東北 ㊦, 吉. 井當戶牖間, 富. 井居西南 ㊦, 其君不疼必窮. 井居西北 ㊦, 必絶后. ……小宮大門, 貧.”

북쪽 제나라로 가다가 일자를 만났는데 일자가 제계서 오늘 북방에서 흑룡을 죽이는데, 선생의 옷이 검은 색이니 북쪽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목자가 듣지 않고 북쪽으로 갔지만 溜水를 건너지 못하고 돌아왔다”<sup>47)</sup>라고 하여 북쪽을 상징하는 검은 색과 상충, 방위에 따른 금기사항이 보인다.

위와 같이 睡虎地 秦簡 『日書』의 방위관에는 천문역법을 바탕으로 한 지상의 시간과 공간 구획, 중앙 중시, 인사 예단의 기준, 생활 금기, 시공을 초월한 방위관, 길흉 결정의 관건 등에 대한 인식이 종합적으로 구현되어 있다. 또 睡虎地 秦簡 『日書』가 무덤의 부장품이었던 것으로 보아, 진대의 방위관은 사후의 영역까지 포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4. 孔家坡 漢簡 『日書』의 方位觀

漢代는 진시황의 종교<sup>48)</sup>통일 정책이 실패한 후, 儒家와 方士(術數家)들의 대립과정에서 상호간의 경계가 점차 모호해지고 결국 동한시기에는 술수의 내용을 통해 종교를 세우게 되는 기현상이 빚어지기도 했다.<sup>49)</sup> 이 때 술수류 문헌으로 『일서』가 주로 활용되었다. 漢代는 方術이 유행한 시기로서 神仙思想·辟邪趨吉·天象·天界·四神(靑龍·白虎·朱雀·玄武의 4방위 수호신) 등에 대한 관심이 무덤의 벽화에도 자주 표현되었을 정도이다.<sup>50)</sup>

秦簡과 함께 漢簡에도 천문성수를 중시한 방위관이 보인다. 특히 28宿의 방위는 1년 12개월을 구분하고 이에 따라 생활의 제반 문제를 안배하는 중요한 근거였다. 공가과 한간 『일서』에서는 28宿의 방위를 기준으로, 그것을 인

47) 王煥鑣 校釋, 『墨子校釋·貴義』, 杭州: 浙江文藝出版社, 1984, 357쪽: “子墨子北之齊. 遇日者. 日者曰. 帝以今日殺黑龍于北方. 而先生之色黑. 不可以北. 子墨子不聽. 遂北. 至溜水不遂. 而反焉.”

48) 李零은 종교를 학술, 사상, 방술, 민간 신앙 등을 모두 포함한 의미로 사용하였다.

49) 李零, 『中國方術正考』, 序文, 北京: 中華書局, 2006, 9-10쪽.

50) 洛陽市文物管理局, 洛陽古代藝術博物館編, 『洛陽古代墓葬壁畫』, 鄭州: 中州古籍出版社, 2010, 序文 參照.

사 길흉의 관건으로 묘사하였다. 예를 들면 “8월 角宿에 들 때 처를 들이면 처가 질투가 심하다……문을 달거나 처를 들이거나 시집을 보내거나 재화를 들이거나 자식을 낳으면 모두 길하다.”<sup>51)</sup>라고 하였다. 또 창고, 제사, 장례 등도 28宿의 방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3월 胃宿에 들면 곡식을 들여 놓거나 창고를 지으면 길하다. 처를 들이면 처가 사랑에 빠져 (남편을)버린다. 제사에 길하고……장례에는 불가하다.”<sup>52)</sup>라고 기록했다.

그리고 처를 들이거나, 시집을 보내거나, 이사, 문 달기, 방위 등은 반드시 길한 시간에 맞추어야 하는데, 계절에 따른 날이 길하다 해도 길한 시간에 맞추지 못하면 그 일들은 오래가지 못하고 성사되지 않는 일이 생긴다고 하여,<sup>53)</sup> 시간을 포함한 보다 세분화된 시일금기 인식을 보이고 있다.

공가파 한간 『일서』에서 도표화된 시일금기인 除가 매 달과 地支를 기준으로 한 것은 秦代와 동일하지만, 除를 建除라 하였고 28宿는 따로 기록하지 않고 있다. 또 溲·媚·建·陷·彼·平·宁·空·坐·蓋·成·甬을 대신하여 建·除·盈·平·定·執·破·危·成·收·開·閉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그래서 正月은 建寅, 二月은 建卯, 三月은 建辰, 四月은 建巳, 五月은 建午, 六月은 建未, 七月은 建申, 八月은 建酉, 九月은 建戌, 十月은 建亥, 十一月은 建子, 十二月은 建丑이라 하였다. 이 때 정월은 寅日을 시작으로 除日은 卯, 盈日은 辰의 순서대로 12지지를 배열하였다.<sup>54)</sup>

공가파 한간 『일서』의 방위구도 또한 주가대 진간 『일서』와 동일한데, 동쪽에 寅卯辰을 남쪽에 巳午未를 서쪽에 申酉戌을 북쪽에 亥子丑를 배열하였다. 그리고 1월부터 12월을 寅卯辰巳午未申酉戌亥子丑의 순서에 대응시킴으로써<sup>55)</sup> 時空을 동일시한 진대의 방위관과 같은 면모를 보인다.

51) 湖北省文物考古研究所編, 『隨州孔家破漢墓簡牘』, 北京: 文物出版社, 2006, 133쪽: “八月角……取(娶)妻, 妻妬……爲門, 取(娶)妻, 嫁女, 入貨, 生子, 皆吉.”

52) 위의 책, 『隨州孔家破漢墓簡牘』, 134쪽: “三月胃, 入禾粟及爲困倉, 吉, 以取(娶)妻, 妻愛而棄, 利以祠祀, 不可以葬.”

53) 위의 책, 『隨州孔家破漢墓簡牘』, 139쪽: “取(娶)妻, 嫁女, 遷徙, 啓門, 北南西東, 必擊(系)是時春秋冬夏之日, 雖吉, 而不見是時, 其事必不久, 有不成.”

54) 위의 책, 『隨州孔家破漢墓簡牘』, 129-130쪽.

時空의 동일시는 12개월과 28수의 대응에서도 분명한데, 공가과 한간 『일서』 또한 주가대 진간 『일서』와 마찬가지로,<sup>56)</sup> 8월은 角宿에, 10월은 心宿, 3월은 胃宿, 7월은 張宿에 대응시키고 있다.<sup>57)</sup>

공가과 한간 『일서』에서는 방위를 생활 속의 세부사항에까지 적용시켜 일종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래서 매 월에 담장을 두를 때 금기해야 하는 방위를 구체적으로 적고 있으며, 담을 두를 때 흙을 파헤치는 동토의 금기방위도 제시하였다.<sup>58)</sup>

이와 같이 공가과 한간 『일서』에서는 주가대 진간 『일서』와 마찬가지로 천문성수의 방위를 중심으로 지상에서의 시간과 방위를 파악하고 그것을 다시 수호신적인 의미를 가지고 생활의 지침, 시일금기의 내용으로 구체화하였다. 이것은 현대 사회문화의 하나의 특징으로 볼 수 있으며 이것은 경학에서도 보이는데, 『禮記』에서는 12개월의 태양의 위치와 28수의 방위를 대응시켜 “정월에 해는 영실에 있다. 어두울 때 삼수가 하늘의 남쪽 중앙에 있고, 아침에 미수가 남쪽 중앙에 있다.……2월에 해는 규수의 성좌에 있고, 어두울 때 호수가 남중하며, 아침에 건수가 남중한다.……3월에 해는 위수의 성좌에 있고 어두울 때 칠수가 남중하고, 아침에 견우수가 남중한다.……4월에 해는 필수의 성좌에 있다. 어두울 때 익수가 남중하고, 아침에 무녀수가 남중한다.……5월에 해는 동정수에 있다. 어두울 때 향수가 남중하고, 아침에 위수가 남중한다.……6월에 해는 유수의 위치에 있다. 어두울 때 화수가 남중하고, 아침에 규수가 남중한다.……7월에 해는 익수의 위치에 있다. 어두울 때

55) 위의 책, 『隨州孔家破漢墓簡牘』, 144쪽 도면 참고.

56) 앞의 책, 『關沮秦漢墓簡牘』, 104-105쪽에는 8월은 角宿와 亢宿, 9월은 氐宿와 房宿, 10월은 心宿, 尾宿, 箕宿, 11월은 斗宿와 牽牛宿, 12월은 婺女宿와 虛宿와 危宿, 1월은 營室宿와 東壁宿, 2월은 奎宿와 婁宿, 3월은 胃宿와 昂宿, 4월은 畢宿와 觜宿와 參宿, 5월은 井宿와 鬼宿, 6월은 柳宿와 七星宿에, 7월은 張宿와 翼宿와 軫宿에 대응되어 있다.

57) 앞의 책, 『隨州孔家破漢墓簡牘』, 133-135쪽: “8月角……10月心……3月胃……7月張”

58) 위의 책, 『隨州孔家破漢墓簡牘』, 157쪽: “正月毋垣寅, 五月毋垣卯, 九月毋垣辰, 二月毋垣巳, 六月毋垣午, 七月毋垣未, 三月毋垣申, 七月毋垣酉, 十一月毋垣戌, 四月毋垣亥, 八月毋垣子, 十二月毋垣丑. 土忌. 正月, 二月丁, 庚, 三月, 四月丙, 己, 五月, 六月乙, 戊, 辛, 七月, 八月丁, 庚, 九月, 十月丙, 己, 癸, 十一月, 十二月甲, 戊, 辛. 此胃(謂) 九忌, 不可立垣.”

진수가 남중하고 아침에 필수가 남중한다.……8월에 해는 각수의 위치에 있다. 어두울 때 자휴수가 남중한다.……9월에 해는 방수의 위치에 있다. 어두울 때 허수가 남중하고, 아침에 유수가 남중한다.……10월에 해는 미수의 위치에 있다. 어두울 때 위수가 남중하고 아침에 칠수가 남중한다.……11월에 해는 두수의 위치에 있다. 어두울 때 동벽수가 남중하고, 아침에 진수가 남중한다.……12월에 해는 무녀수의 위치에 있다. 어두울 때 루수가 남중하고, 아침에 저수가 남중한다.”라고 하였다.<sup>59)</sup> 즉 천문성수의 방위와 운행규칙은 그 대로 인사의 길흉판단 및 시령의 기준으로 폭넓게 응용되었음을 『일서』와 『禮記』모두에서 나타내고 있다.

### 5. 方位 測程器具, 漢代 式盤의 方位觀

『일서』는 당시의 방위와 실생활에 대한 저술로서 그 내용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방위를 측정하고 인사에 응용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기구가 있어야만 한다. 漢代의 式盤은 바로 그 방위 측정기구로서 『일서』와는 體用的 關係라 할 수 있다. 또 式盤의 방위구도와 28수와 대응구도가 주가대 진간 『일서』와 공가과 한간 『일서』와 동일하고 당시에 式盤이 실용기구로 널리 활용된 점은, 式盤을 통해 『일서』의 방위관이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漢代 式盤은 목제, 상아, 청동기 등 다양한 재질을 사용하여 만들어졌다. 식반은 술수가들이 시일의 길흉을 점치던 도구로서, 고대 중국인의 우주관·

59) [清] 阮元 校刻, 『禮記·月令』, 北京: 中華書局, 1980, 1352-1384쪽: “孟春之月, 日在營室, 昏參中, 旦尾中.……仲春之月, 日在奎, 昏弧中, 旦建星中.……季春之月, 日在胃, 昏七星中, 旦牽牛中.月孟夏之月, 日在畢, 昏翼中, 旦婺女中.……仲夏之月, 日在東井, 昏亢中, 旦危中.……季夏之月, 日在柳, 昏火中, 旦奉中.……孟秋之月, 日在翼, 昏建星中, 旦畢中.……秋之月, 日在角, 昏牽牛中, 旦觜觶中.……季秋之月, 日在房, 昏虛中, 旦柳中.……孟冬之月, 日在尾, 昏危中, 旦七星中.……仲冬之月, 日在斗, 昏東壁中, 旦軫中.……季冬之月, 日在婺女, 昏婁中, 旦氏中.”

사유 방식·행동방식을 이해하는 열쇠이다. 식반의 도식은 子彈庫의 楚帛書와 馬王堆 漢墓 帛書의 배경이기도 하여,<sup>60)</sup> 漢代의 시일 금기와 술수의 내용은 식반을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아래의 西漢初期 漆器 木製 式盤은 1977년 안휘성의 雙古堆 M1무덤에서 출토된 것으로서 地盤과 天盤, 그리고 地盤과 天盤을 받치는 받침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연대는 기원전 165년 이후이다. 이 유물은 현재 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sup>61)</sup> 식반이 天圓地方의 두 부분으로 된 것은 주가대 진간 『일서』의 구도와 같다. 또 점을 치거나 방위 측정을 위해 두 부분을 복합해서 활용해야 했던 점은 천원지방이라는 인식을 인사에 구체적으로 접목시킨 면모이기도 하다.

式盤의 12방위, 24방위의 구도는 주가대 진간 『일서』의 방위구도와 같다. 차이가 있다면 북두칠성, 28수, 12계절이 天圓에 놓여 있고, 戊와 己가 地方 부분의 양쪽 모서리로 옮겨져 있으며 28수가 다시 地方의 가장자리에도 펼쳐져 있는 점이다. 방위측정, 인사 길흉 예단의 실제 기구였던 식반의 자침이 북두칠성인 것은, 당시에 북두칠성의 운행 방향을 기준으로 1년의 시간을 구분하고 그것을 다시 방위 구분의 단서로 적용했기 때문이다.

西漢 식반에는 戊와 己를 반복해서 하늘·땅·사람·鬼(尸의 상태)의 상호 대칭 요소로 구분하여, 하늘과 사람은 己에, 땅과 귀는 戊에 배당함으로써 지표면 아래와 위의 두 영역으로도 구분하였다. 이것은 세부적인 음양의 배치로서, 진대에 중앙을 상징하던 戊·己가 漢代에는 동남·남서·서북·북동의 네 귀퉁이 방위로 정착되어 있다. 아래 서한초기 칠기 목제 식반의 그림 (1)은 천반의 정면이고, 그림 (2)는 천반의 뒷면과 받침대이다.<sup>62)</sup> 그림 (3)은 지반 위에 천반을 올려놓았을 때이며, 그림 (4)는 과두문자로 기록된 원래의 모습이다.

아래 식반에서 戊·己의 중복 사용은 동일 명칭의 반복으로서 혼동되기 쉬

60) 앞의 책, 『中國方術正考』, 69쪽.

61) 위의 책, 『中國方術正考』, 7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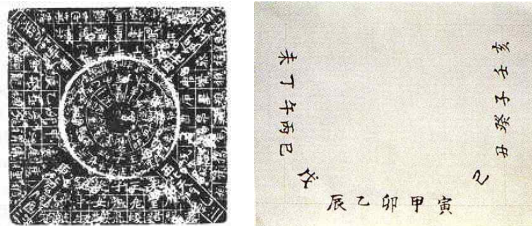
62) 위의 책, 『中國方術正考』, 70-71쪽.

운데, 고대에도 그 점을 느껴서인지 동한시대 칠기 식반에는 팔괘 가운데 乾·坤·艮·巽의 부호를 사용하여 戊·己를 대체하였다. 칠기 식반에 乾·坤·艮·巽의 부호를 새긴 것으로 보아, 명칭이 건·곤·간·손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위 구도와 명칭은 현재 통용되는 나반과 동일한데, 천간·지지·팔괘를 사용한 방위 구도와 명칭의 정착 시기가 서한말 동한초이며, 어떤 변화도 없이 현재까지 일관되게 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sup>63)</sup>

아래 漆盤은 옛 고구려의 영토였던 평양 부근에서 발견되었는데, 칠기의

제조 공법과 무덤 주인이 王旻라는 중국 관리였다는 점에서, 사천성에서 제조된 것으로 본다. 漆盤의 뒷면에는 永平十二年銘神仙畫象漆盤이라고 새겨져 있었다. 영평12년은 서기69년이고, 칠반 뒤에 “永平十二年蜀郡西工夾紵行

63) 乾·坤·艮·巽이 글자로 새겨져 있는 것은 육조시대 청동식반에서 보이는데, 아래의 그림과 같이 乾·坤·艮·巽은 乾은 서북방에, 坤은 서남방에, 艮은 동북방에, 巽은 동남방의 네 귀퉁이와 상호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戊와 己가 乾·坤·艮·巽으로 대체된 중국과는 달리 한반도의 백제 무령왕릉 묘지석에는 여전히 戊와 己를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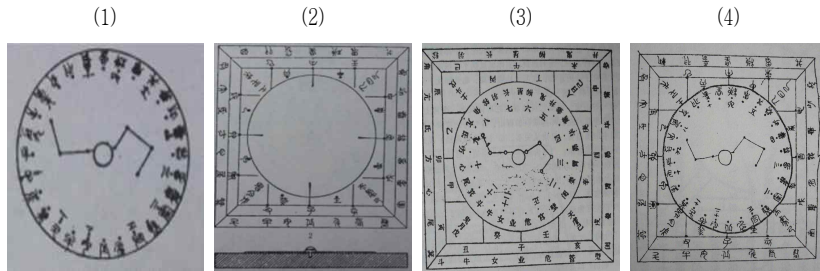
(좌):육조시대 청동 식반 : 앞의 책, 『中國方術正考』, 76쪽.

(우):백제 무령왕릉의 묘지석 : 권오영, 『고대동아시아 문명교류사의 빛-무령왕릉』, 서울 : 돌베개, 2005, 12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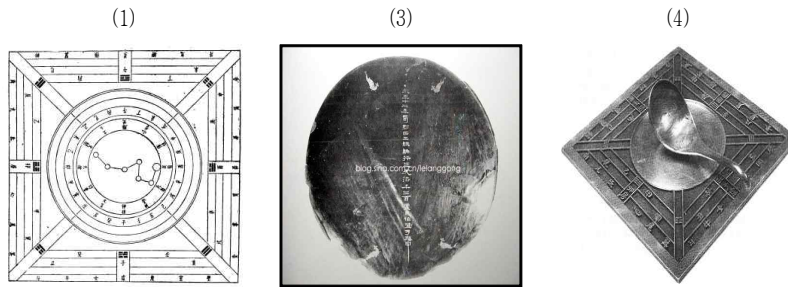
64) 위의 책, 『中國方術正考』, 71쪽.

65) 칠반 뒷면 사진은 중국sina.com의 블로그에서 인용. 앞면은 馮時, 『中國天文考古學』, 北京 :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7, 523쪽.

66) 로버트 템플 저, 과학세대 옮김, 『그림으로 보는 중국의 과학과 문명』, 서울 : 도서출판 까치, 1993, 252쪽.



서한(西漢)초기 식반들<sup>64)</sup>



1925년 평양 부근에서 발굴된 漆盤의 앞면과 뒷면<sup>65)</sup> 동한시기 청동식반<sup>66)</sup> 三九治千二百盧氏作宜子孫牢”를 새겨 무덤의 조성을 통한 자손의 안녕을 기원하고 있다. 위 漆盤은 그것으로 길한 조장일시를 고른 뒤 장례 후 무덤 속에 부장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방위, 길일 등이 사후 세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여겼음을 알 수 있다. 즉 묘지에 식반을 부장했고, 식반이 吉日과 吉方 등을 점치는 도구였으며, 주가대와 공가와 『일서』도 묘지 부장품인 점에서 『일서』와 식반의 방위관 범위는 이승을 넘어 사후세계까지를 포함한 영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

西漢초기 식반 (3)에서 8월은 角宿와 亢宿에, 9월은 氏宿, 房宿에, 10월은 心宿, 尾宿, 箕宿에, 11월은 斗宿, 牛宿에, 12월은 女宿, 虛宿, 危宿에, 1월은 營宿와 壁宿에, 2월은 奎宿와 婁宿에, 3월은 胃宿와 昴宿에, 4월은 畢宿, 觜宿, 參宿에, 5월은 井宿와 鬼宿에, 6월은 柳宿와 星宿에, 7월은 張宿, 翼宿, 軫宿에 대응하고 있다. 이것은 12개월 마다 태양은 위의 28수가 있는 위치에 있

다는 내용으로서 28수가 적도 주위에 분포된 도수를 가지고 추산해서 나온 결과이다. 이 때 천반은 左旋으로, 지반은 右旋으로 표시되어 있다. 여기에서 매 월과 28수는 시기구분이기도 하고 시일금기인 月將 표시기이기도 하다. 8월을 예로 들면 태양이 8월에는 角宿와 亢宿를 비춘다는 것으로서 각宿와 항宿은 8月將으로 간주되어, 天圓·地方·人事의 결합 면모가 다시 확인된다.

식반은 자오침<sup>67)</sup> 없이는 운용할 수 없는데, 중앙에 놓인 북두칠성의 자오침을 따라 바깥쪽으로 사방·팔방·12방·24방·28수로 층층이 구획되어 있다. 이 또한 중앙 중시 방위관과 천문성수와 인사의 길흉에 대한 인식이 식반이라는 도구에 재현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중앙 중시, 인사 길흉의 방위관은 유가문헌에서도 동일하다. 『예기·월령』에 천자는 봄에는 청양의 왼쪽 방, 대묘, 오른쪽 방에 머물고, 한여름에는 명당의 왼쪽 방, 태묘, 오른쪽 방에 머물며, 대묘대실은 중앙 토에 위치하여 여름과 가을 사이에 머물며, 가을에는 총장의 왼쪽 방, 대묘, 오른쪽 방에, 겨울에는 현당의 왼쪽 방, 대묘, 오른쪽 방에 각각 머물렀다고 기록되어 있다.<sup>68)</sup> 이 때 중앙을 토에 배당한 것으로 보아 청양은 동쪽에, 명당은 남쪽에, 총장은 서쪽에, 현당은 북쪽에 각각 위치하고 있었던 것을 유추하기란 어렵지 않다. 오행의 속성상 봄에 대응하는 방위는 동쪽이며 여름은 남쪽, 가을은 서쪽, 겨울은 북쪽에 배당되기 때문이다. 이로써 중앙을 중시하고 오행관이 결합된 한대 방위관의 일면이 엿보인다.

67) 동한시기 청동 식반 위에 놓인 숟가락 모양의 자침은 자오침의 원형으로서, 지금과 같이 정교한 자오침을 활용하기 이전의 유물이다. 숟가락 모양의 자침은 하늘의 북두칠성이 정북과 정남을 구분할 수 있는 기능을 모방한 것인데, 한대 화상석은 그것이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던 기구였음을 그리고 있다 : 앞의 책, 『그림으로 보는 중국의 과학과 문명』, 255쪽 그림 참조.

68) 앞의 책, 『禮記·月令』, 1383-1384쪽 : “孟春之月,……天子居青陽左个,……仲春之月,……天子居青陽大廟,……季春之月,……天子居青陽右个,……孟夏之月,……天子居明堂左个,……仲夏之月,……天子居明堂太廟,……季夏之月,……天子居明堂右个,……中央土, 其日戊巳, 其帝黃帝, 其神后土,……天子居大廟大室,……孟秋之月,……天子居總章左个,……仲秋之月,……天子居總章大廟,……季秋之月,……天子居總章右个,……孟冬之月,……天子居玄堂左个,……仲冬之月,……天子居玄堂大廟,……季冬之月,……天子居玄堂右个.”

위와 같이 1년의 주기적 순환에 입각한 천문관측을 통해 파악된 28수와 북두칠성 같은 중요 성수의 방위는 그대로 인사의 관건이 되었음을 『일서』, 유가문헌, 그리고 식반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 6. 秦漢簡 『日書』의 方位觀과 五行의 關係

周家臺 秦簡과 孔家坡 漢簡 『日書』, 그리고 식반의 방위구도는 기본적으로 중앙과 동서남북의 五方이다. 五方은 단순히 방위를 지칭하기도 하지만, 인사의 기준으로 활용될 때는 물리적인 방위 외에 모종의 의미를 포함하면서 오행으로 불린다. 오행은 기본적으로 천문성수의 방위와 지상의 시간을 기반으로 하고, 『日書』시일금기의 주요 기준이며, 자금성과 같은 역사 문화의 현장의 주요 배경이자 현재까지도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는 면에서 볼 때 진한간 『일서』의 오행 내용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秦代 주가대 방위도에는 오행관이 확립되어 있다. 천간과 방위, 오행을 결합하여 토를 상징하는 戊와 己를 중앙에 두고 동방은 木, 남방은 火, 서방은 金, 북방은 水로 표기되어 있다. 또 木은 甲·乙에 火는 丙·丁에 金은 庚·辛에 水는 壬·癸에 대응되어 있고 “甲乙木·丙丁火·戊己土·庚辛金·壬癸水.”<sup>69)</sup>도 병기되어 있다. 지지도 천간, 방위와 결합되어 亥·子·丑은 북방 수에, 寅·卯·辰은 동방 목에, 巳·午·未는 남방 화에, 申·酉·戌은 서방 금의 오행의 방위에 배당되어 있다. 한대 식반에서도 갑·을은 동방에, 병·정은 남방에, 경·신은 서방에, 임·계는 북방에 배속한 외에도, 地支, 方位, 성수와 결합된 오행이 보인다.

秦代에 五行은 하나의 용어로 굳어져 있다. 수호지 진간 『일서』의 한 편의 제목은 아예 「五行」이며, “金勝木, 火勝金, 水勝火, 土勝水, 木勝土, 東方木, 南方火, 西方金, 北方水, 中央土.”<sup>70)</sup>라고 하여 방위와 오행을 넘어 상극의 의

69) 위의 책, 『關沮秦漢墓簡牘』, 119쪽 : “甲乙木, 丙丁火, 戊己土, 庚辛金, 壬癸水.”

미와도 결합되어 있다. 그것은 기원전 170년 이전에 조성된 묘에서 발견된 馬王堆 漢墓의 『五星占』과도 동일한 내용으로서,<sup>71)</sup> 『五星占』이 天文占書라는 점을 감안하면 오행이 천문성수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한 것임이 분명해진다.

수호지 진간 『일서』에서는 오행 상충의 금기와 이유에 대해, 각 계절에 왕성한 생명력을 중시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sup>72)</sup> 또 오행의 상호 대치되는 방위에 대한 인식도 상충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수호지 진간 『일서』에서는 ‘봄 3개월 동안은 경신일, 여름 3개월 동안은 임계일, 가을 3개월 동안은 갑을일, 겨울 3개월 동안은 병정일, 이는 대폐일이니 처를 들이거나 지붕을 올리거나 출행을 하는 일 등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 봄과 가을(경신), 여름과 임계(겨울), 가을과 갑을(봄), 겨울과 병정(여름)은 방위 구도로 보면 서로 대치하고 있는 위치에 있다.

마왕퇴 한묘의 『五星占』에서는 오행의 상생상극으로 군사에까지 응용하였다. 즉 목성·금성·화성·토성·수성·오성총론·목성행도·토성행도·금성행도의 체계를 통해 나라의 흥망성쇠, 군사, 사계절, 12개월 등을 오행과 상생상극설로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면 “大白과 熒惑이 만나면 금과 화가 만나는 것이다. 東(鍊)이라고 하니 군대를 출동시켜서는 안 된다. 형혹과 辰星이 만나면 수와 화가 만나는 것이다. 焯라고 하니, 군대를 출동시켜서는 안 되며, 만약 출동시키면 크게 패한다.”<sup>73)</sup>

상충은 음양에 대해서도 적용되었다. 주가대 진간 『일서』와 공가과 한간 『일서』에서는 “장일에 있어서, 자·묘·사·유·술일을 男日이라 하고, 오·미·신·축·해·진일을 女日이라고 한다. 女日에 죽었는데 女日에 장사지내

70) 앞의 책, 『睡虎地秦簡『日書』甲種疏証』, 473쪽.

71) 劉東賢, 『馬王堆天文書考釋』, 廣州: 中山大學出版社, 2004, 234쪽.

72) “春三月甲乙, 不可以殺, 天所以張生時. 夏三月丙丁, 不可以殺, 天所以張生時. 秋三月庚申, 不可以殺, 天所以張生時. 冬三月壬癸, 不可以殺, 天所以張生時. 此皆不可殺, 小殺小央, 大殺大央.” : 앞의 책, 『睡虎地秦簡『日書』甲種疏証』, 468쪽.

73) 앞의 책, 『馬王堆天文書考釋』, 234쪽: “大白與熒惑遇, 金, 火也. 命曰東(鍊), 不可用兵. 熒惑與辰星遇, 水, 火也. 命曰焯, 不可用兵, 舉事大敗.”

면 다시 또 장사치를 일이 생긴다. 男日도 마찬가지이다.”<sup>74)</sup>, “牡日에 사망했는데 모일에 장사지내면 장사치를 일이 다시 생긴다 …… 牝日에 사망했는데 牝日에 장사지내면 장사치를 일이 다시 생긴다.”<sup>75)</sup>라고 하여 음과 음의 상충, 양과 양의 상충을 금기시하였다. 또 음양에 대해 正陽·危陽·陰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매우 세분된 양상을 보인다.<sup>76)</sup>

위와 같이 秦漢簡 『日書』에서 五行은 구체적인 용어로 굳어져, 천간·지지·방위·상생상극·생명존중·음양오행·시일금기 등의 내용이 결합되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생활의 기준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었다.

## 7. 結論

중국에서 방위는 역법, 예제, 일상생활, 시간과 공간의 구분, 입지선택, 행정, 농사, 전쟁, 일상, 미래예측 등 생활의 전 분야에 걸쳐 활용된 주요한 문화적 내용이다. 방위는 물리적인 지면 구획의 기능을 넘어, 시간과 공간 두 부분을 모두 의미하는 광범위한 구도였다.

방위는 천문성수의 운행과 규칙성에 대한 통계적 자료를 근거로 마련될 수 있었고, 그것은 시일 구분의 중요한 근거가 됨에 따라 점차 생활 풍속에 따른 금기 인식과 결합되어, 진한대 『日書』의 내용으로 기록되어 당시 사람들의 미래지침서로 기능하였다.

『日書』는 일종의 생활공구서이자 선택서로서 그 내용은 천문학·역법·시공관·방술의 흥기 및 위기로 가득 찬 생존환경에서의 탈출 등에 대한 염원

74) 앞의 책, 『睡虎地秦墓竹簡』, 131쪽 : “葬日, 子卯巳酉戌, 是胃男日, 午未申丑亥辰, 是胃女日, 女日死, 女日葬, 必復之. 男子亦然.”

75) 앞의 책, 『隨州孔家坡漢墓簡牘』, 152쪽 : “爲牡日, 牡日以死及葬, 必復之 …… 牝日, 牝日以死及葬, 必復之.”

76) 앞의 책, 『睡虎地秦簡 『日書』甲種疏証』, 84쪽, 앞의 책 『隨州孔家坡漢墓簡牘』, 131쪽 참조.

등이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다.

주가대 진간 『일서』에서는 28宿·北斗七星·五星·日月 등 천문성수의 방위를 기준으로 1년 12개월의 시간을 구분하였고, 지상의 중앙·사방·8방·12방·24방위가 구획되었음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또 북두칠성과 28수의 움직임에 착안하여 일상·정치·경제·문화·제사·결혼·출생·재화·피신·송사·거주·전쟁·금기 등과 관련된 인사의 길흉을 예단하거나, 일상생활의 효율적인 기준으로 삼았다.

방위의 핵심은 어느 곳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에 있는데, 주가대 진간 『일서』에서는 그것이 중앙이었음이 드러난다. 중앙 중시 또한 천문과 인사의 긴밀한 연관에서 파생된 것으로서, 지상에서의 방위 구획과 인사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 관건이 북두칠성이고 그것의 위치가 하늘의 중앙인 점을 모방한 면모를 보인다. 중앙중시는 국도건립과 같은 중대사에도 큰 기틀로 자리해왔지만, 무엇보다 오행의 확립에도 기반이 되었다.

수호지 진간 『일서』에서 방위는 주거시설 조성의 기준으로 되어, 가옥과 그 부대시설인 담장·축사·곳간·대문 등이 놓인 방위 또한 인사 길흉의 관건임을 기록하고 있다.

공가파 한간 『일서』에서도 천문성수, 특히 28수의 방위를 통해 1년의 시간을 구획하고 생활의 제반 문제를 안배하였음을 기록하고 있다. 방위는 인사의 관건으로 인식되어, 계절·월·일·시를 모두 포함하여 시일길흉의 준거로 적용했던 방위관이 분명하다. 그것은 담장 설치나 흙을 파헤치는 동토의 금기와 같은 세부적인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秦漢簡 『日書』의 생활공구서로서의 역할은 式盤으로 실제 방위를 측정하고 그것을 다시 인사에 적용함으로써 더욱 구체화되었다. 주가대 진간과 공가파 한간 『일서』에서 중앙을 중시하고, 천문성수와 인사를 접목한 방위관은 式盤에 그대로 재현되어 있다. 式盤이 天圓地方의 구조이고 方術의 흥기에 따라 실용기구로 널리 활용된 점은 『일서』의 방위관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일상생활의 실질적인 기준이었음을 의미한다. 또 式盤과 『일서』가 무덤의 부장품이

었다는 점에서 『일서』와 식반의 방위관은 이승을 넘어 사후세계까지를 포함한 범주였음도 나타난다.

『일서』와 式盤의 기본 구도인 五方은 인사의 기준으로 활용될 때 특정한 의미를 지닌 오행이 되는데, 五行은 秦漢簡 『日書』에서 일상용어로 굳어 있고, 천간·지지·방위·상생상극·생명존중·음양오행 등의 내용이 결합되어 인사와 생활 禁忌의 기준으로 활용되었다. 禁忌는 풍속과 습관에 따른 일종의 관념으로서, 神性和 위험에 대한 인식, 언행의 금지, 심리적인 억제, 어떤 행위를 제지하는 일종의 수단을 말한다.<sup>77)</sup> 秦漢簡 『日書』는 천문성수의 규칙성을 바탕으로 당시인들의 천문·지리·인사·생활·역법·방위·금기·이승·저승 등에 대한 인식이 총체적으로 반영된 결과물이며, 式盤은 그 실질 기구로서 오행은 禁忌의 기본 구도로서 활용되었다.

77) 任勝, 『中國民間禁忌』, 臺北: 漢欣文化事業有限公司, 1996, 7쪽.

## 參考文獻

- 권오영, 『고대동아시아 문명교류사의 빛-무령왕릉』, 서울 : 돌베개, 2005.
- 김성기 外, 「出土資料 『日書』의 연구현황과 그 사상사적 의의」, 동양철학연구회 제42집, 2005.
- 문정희, 「秦漢 祭禮와 국가지배」,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서울, 2006.
- 梁東淑, 「甲骨文에 나타난 商代の 天文學」, 韓國中文學會, 中國文學研究, 제22집, 서울, 2001.
- 王朝陽, 「從秦簡 『日書』看牛郎織女故事之形成與流變」, 貴州: 貴州文史叢刊, 2011年 2月.
- 劉道超, 「秦簡 『日書』五行觀念研究」, 周易研究, 桂林 : 廣西師範大學曆史文化與旅遊學院, 2007年 4期.
- 賀潤坤, 「從雲夢秦簡 『日書』看秦國的農業水利等有關狀況」, 江漢考古, 1992年 4月.
- 閔喜琴, 「從秦簡 『日書』分析秦人重出遊的原因」, 隴東學院學報, 2009年 1月.
- 沈剛, 「睡虎地秦簡 『日書』所見的秦時民間信仰活動探微」, 西安財經學院學報, 2009年 1月.
- 杜林淵, 「從秦簡 『日書』看戰國時期的相宅術」, 文博, 2007年 5月.
- 趙浴沛, 「從秦簡 『日書』看秦代婚姻和家庭人際關係」, 河南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05年 2月.
- 金惠貞, 「中國 風水地理學的 天文觀 研究」, 공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 金惠貞, 「양택 풍수지리의 방위관 : 『宅經』을 중심으로」, 건축역사연구, 제18권 제2호, 통권63호(2009년 4월).
- 南懷瑾 著, 신원봉 譯, 『易經雜說』, 서울 : 문예출판사, 1998.
- 로버트 템플 著, 과학시대 옮김, 『그림으로 보는 중국의 과학과 문명』, 서울 : 도서출판 까치, 1993.
- 세오 다쓰히코 저, 최재영 역, 『장안은 어떻게 세계의 수도가 되었나』, 서울 : (주)황금가지, 1996.

- 岳南 著, 심규호·유소영 共譯, 『夏商周斷代工程』, 서울: 일빛, 2006.
- 張光直 著, 윤내현 譯, 『商文明』, 서울: 민음사, 1988.
- 陳煒湛 著, 李圭甲 外 譯, 『甲骨文導論』, 서울: 學古房, 2002.
- 簿樹人 編, 『中國天文學史』, 台北: 文津出版社, 1996.
- 陳久金·楊怡 著, 『中國古代的天文與曆法』, 台北: 臺灣商務印書館, 2005.
- 馮時 著, 『中國天文考古學』,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7.
- [漢] 班固 撰, 『漢書』, 北京: 中華書局, 1964.
- 湖北省荊州市周梁玉橋遺址博物館編, 『關沮秦漢墓簡牘』, 北京: 中華書局, 2001.
- 湖北省文物考古研究所編, 『隨州孔家破漢墓簡牘』, 北京: 文物出版社, 2006.
- 李零 著, 『中國方術正考』, 序文, 北京: 中華書局, 2006.
- 劉東賢 著, 『簡帛數術文獻探論』, 武漢: 湖北教育出版社, 2002.
- 劉東賢 著, 『馬王堆天文書考釋』, 廣州: 中山大學出版社, 2004.
- 洛陽市文物管理局, 洛陽古代藝術博物館編, 『洛陽古代墓葬壁畫』, 鄭州: 中州古籍出版社, 2010.
- [南宋] 王應麟 纂, 『玉海』(195卷),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7.
- [清] 阮元 校刻, 『十三經注疏』, 北京: 中華書局, 1980.
- 任騁 著, 『中國民間禁忌』, 臺北: 漢欣文化事業有限公司, 1996.
- 施維 主編, 『周易卦圖解』, 成都: 巴蜀書社, 2003.
- [宋] 朱熹, 『易學啓蒙』, 台北: 中華書局, 1988.
- 睡虎地秦墓竹簡整理小組編, 『睡虎地秦墓竹簡』, 北京: 文物出版社, 1990.
- 王子今 著, 『睡虎地秦簡日書甲種疏証』, 武漢: 湖北教育出版社, 2002.
- 許進雄 著, 『古事雜談』,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2013.
- 楊寬 著, 『戰國史』,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97.
- 張顯成, 『簡帛文獻學通論』, 北京: 中華書局, 2004.
- 鐘宗憲, 『先秦兩漢文化的側面研究』, 臺北: 知書房, 2005.
- [周] 左丘明, [吳] 韋昭 注, 『國語』, 濟南: 齊魯書社, 1998.

Abstract

A Study on the Bearing Ideas in Qin Han Jian Ri Shu

- Focused on Zhou Jia Tai and Shui Hu Di Qin Jian Ri Shu and Kong Jia Po Han Jian Ri Shu

Kim, Hye Jung

Bearings are a foundation stone of society in China. Bearings have been considered important as a historic and cultural aspect. Furthermore the bearings have combined with taboos in Chinese living manners. 24 Bearings are basic notion of bearings in China and the contents of 24 Bearings and taboos are recorded in Ri Shu in Qin Han period. 24 Bearings including center have served not only as a division method of measuring exact directions and positions but also as indicators for politics, economy, culture, wedding, birth, goods, escape etc. in Qin period.

Astronomical bearings were the basic standard to determine earthly bearings. And many Ri Shu which recorded the various meanings of bearings were used as the important textbooks for predicting the future of people in Qin period. The positions of Sun, the Big dipper, Venus, Mars, Jupiter, Mercury, Saturn and Lunar mansions in the sky were the main standard to look ahead into the future of people. In addition, the names and locations of 24 bearings were firmed up in Han period. and until now those names and locations are in use.

Bearings are the basic contents of Yin Yang Wu Xing, and that firmed up as a special term in Qin period. The contents of Yin Yang Wu Xing's balance, Gan Zhi, bearings, respect for life were used as good guide lines for human's well being in Qin Han period.

Ri Shu and Shi Pan were written as the result of ideas for bearings which combined with astronomy, human's everyday living, calendar, taboos, and afterlife in Qin Han period.

Key words : Bearing, Qin Han Jian Ri Shu, Tian Wen, Taboo, Shi Pan

투 고 일 : 2013. 09. 10. / 심 사 일 : 2013. 10. 20. ~ 2013. 10. 27. / 게재확정일 : 2013. 10. 28.